



[코로나19]  
소상공인  
단기자금 대출  
패스트트랙  
04

코스피 1609.97 (+127.51)	↑	코스닥 480.40 (+36.64)
금리 1.13 (국고체 3년) (-0.03)	↓	환율 1279.60 (원·달러) (-16.90)(24일)

文 대통령 '비상금융 조치' 2배 확대

# 100조 풀어 돈맥경화 뚫는다

## 2차 비상경제회의

코로나發 경영난 전 시장 확산 우려  
단기적 감내가능 최대수준 공급  
중소·중견기업 58조 대출·보증  
금융시장 불안차단에 42조 투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기존 예상치보다 규모를 크게 늘려 감내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채권시장 등 이미 경고등이 켜진 자금시장의 '돈맥경화'를 풀기 위해 40조원이 넘는 안정화 자금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자금 투입 규모를 기존 50조원의 두 배인 100조원으로 확대했다.

이번엔 지원대상과 범위를 모두 늘렸다. 소상공인부터에서 시작된 경영 난이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대출시장에서 시작된 충격이 단기자금시장과 자본시장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현상에 따른 경제 충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격이 만만치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중소·중견기업들이 겪게 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총동원해 29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필요하다면 대기업에 대해서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발표한 29조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이번 2차 대책을 합하면 총 58조원의 대출·보증이 공급된다.

주식시장과 회사채시장 등 금융시장의 불안 차단을 위해서는 42조원 규모

의 자금을 투입한다.

먼저 채권시장안정펀드는 20조원을 조성해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CP) 등 자금시장의 신용경색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기존에 조성 키로 한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은 즉시 가동하고, 10조원을 신속하게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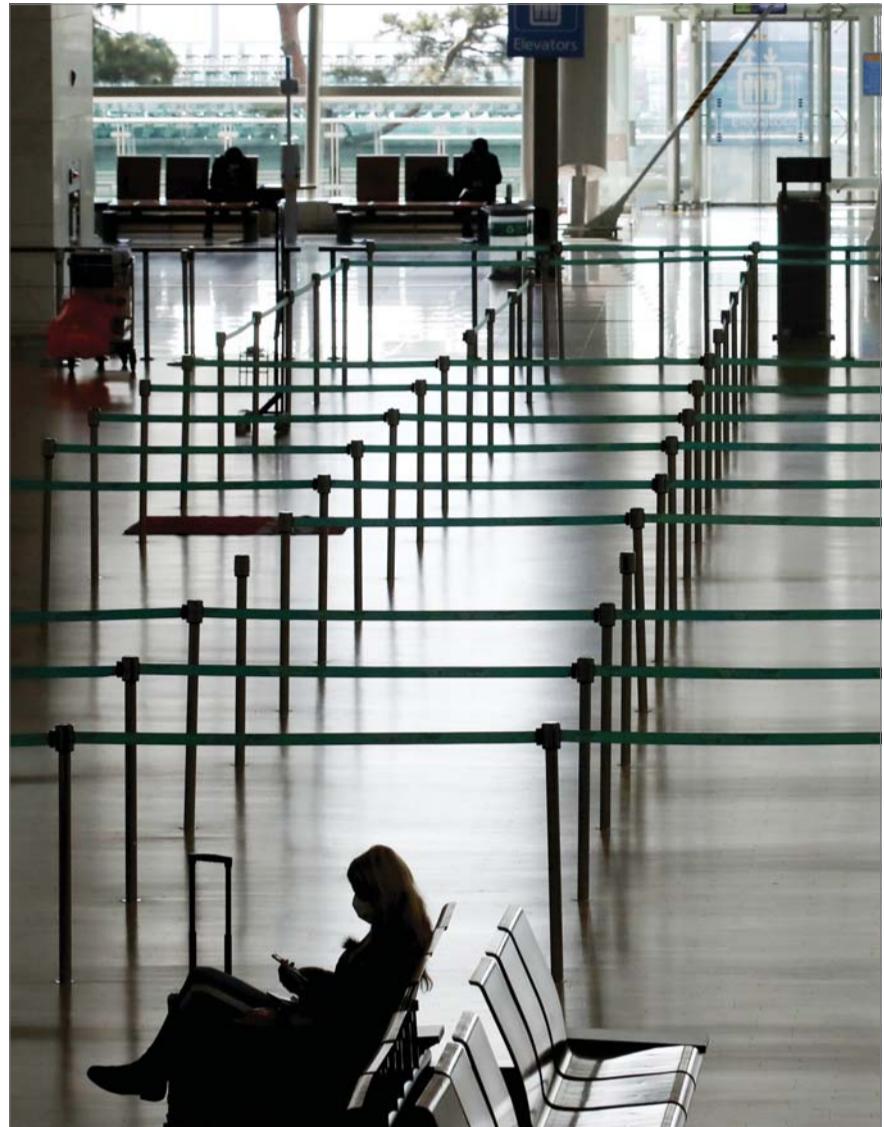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출자 금융회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3조원 규모의 1차 캐피탈 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4월 초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권매입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돈을 풀어 위기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CP,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자금시장의 거래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7조원을 투입한다. 증권사에 대해 증권금융 대출 등을 통해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며, 정책금융기관이 2조원 규모로 우량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할 방침이다.

증시안전판 역할을 위해서는 증권시장안정펀드가 총 10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5대 금융지주와 업권별 주요 금융회사 등이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자금을 마련하며, 증시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별 주식이 아닌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에 투자한다.

/안상미·최영훈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2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다음달 23일까지 한 달 동안 우리 국민이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고 권고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 정부 약발, 일단 먹혔다… 주가·원화값 급등

## 코스피·코스닥 8% 이상 급등

주식시장이 8%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다.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가 호재로 작용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급락과 급등이 널뛰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7.51포인트(8.60%) 상승한 1609.97에장을 마감했다. 그동안 매수행진을 펼치던 개인은 인라 매도세로 바뀌었다. 4615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았다. 반면 기관이 5030억원 규모의 순매수를 나타냈다. 외국인은 1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전날 과도한 낙폭을 보였던 증권업종지수(11.25%)가 크게 뛰었다. 전기·전자(10.01%)도 급등했다. 운수창고(-2.48%)가 유일하게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854개, 하락 종목은 34개, 보합 종목은 16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200위 종목 중 하락 종목은 4개에 불과한 진풍경을 연출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 힘입어 급등한 24일 오후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 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10.47%)와 SK하이닉스(13.40%)은 10%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

사이드카는 이날도 시작됐다. 개장 한 시간이 조금 더 지난 오전 10시 5분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다.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전일보다 5.29% 상승해 1분간 지속되면서다. 3분 전인 오전 10시 2분 코스닥 시장에도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6.15%, 현물 가격이 4.96% 오르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정의선·신동빈 등 매입 잇따라  
주요 임원들도 자사주 구매 바람

국내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섰다. 사업 신뢰도를 높이면서 주가 하락을 방어함과 동시에, 경영권을 강화하는 효과까지 1석 3조를 노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최근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주식을 2차례에 걸쳐 대거 매입했다. 매입 대금만 200억원 가까이된다. 이에 따라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차 지분을 1.81%에서 1.88%로 끌어올렸다. 현대모비스 지분도 처음으로 0.11% 확보했다.

현대차에 근무하는 주요 임원들도 자사주 매입에 동참했다. 앞선 20일 이원희 사장과 서보신 사장에 이어, 서정국 전무와 석동빈 상무 등이 정수석부회장을 따라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다.

현대차는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됐다고 판단했다며, 회사를 책임감 있게 끌고 가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지난 20일 롯데지주 주식 약 10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의 지분은 10.47%에서 11.67%로 치솟았다. 롯데지주 임원 29명도 함께하며 주가하락으로 공포에 빠진 주주들을 안정시켰다.

그 밖에 허세홍 GS칼텍스 사장과 L

S그룹 구동휘 전무, LS 앰트론 구자는 회장 등 재계 오너 일가에서도 자사주를 사들이며 주주 친화 정책에 힘을 보탰다.

전문 경영인들도 자사주를 사들이며 주주 중심 방침을 직접 실천했다. 포스코가 24일 최정우 회장 등 임원 51명이 주식 약 26억원어치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이 지난 달에 이어 이번 달까지 약 3억5000만원 상당 자사주를 샀고, LG상사 윤춘성 대표도 지난 달 약 5000만원 어치 자사주를 인수했다.

삼성 계열사도 경영진들의 자사주 구매 바람이 불고 있다. 삼성생명 전영묵 대표와 유호석 CFO, 삼성엔지니어링 최성안 대표가 주인공이다.

효성그룹 지주사인 효성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자사주를 사들였다. 특히 효성은 240억규모를 쏟아부어 자기 주식 비중을 3.51%나 더 확보했다.

그 밖에도 컴투스와 엠게임, 드래곤플라이 등 게임업체를 비롯해 테스와 대한제강, 도이치모터스 등 중견업체들도 자사주를 사모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자사주 280만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히며 주주들의 가치를 크게 높여줬다.

6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